고은 불교대하소설

색계

도솔천 내원의 상수 상을은 오랜 불나처럼 여기 와서도 남매였다. 그들은 무욕도를 떠난 이래 다른 중생계에서 부부이기도 했고 멀리 헤어져 있는 애인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곳 도솔천에 오기 직전 전생에서는 서로 누가 잘 수행하는가를 겨루기라도 하는 것처럼 기도생활에 열중하였던 것이다.

그 선업으로 도솔천 내원의 미륵보살 도량에 태어나서 다시 남매로 살게 되었다.

미륵보살이 그들을 몹시 사랑하였다.

"옛날 내가 섬기는 도반이었던 도솔천자가 생각나는군. 석가보살이 그 천자였지… 그가 나보다 더 중생을 생각한 나머지 그의 간절한 빛이 뻗쳐 시방세계를 두루 비치니 이때 지옥 중생 가운데에 전생 다생의 선근(善根)을 지닌 중생이 그 빛을 받아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지. 나는 그를 당해낼 수 없었지"라는 말도 스스럼없이 해주는 것이었다.

미륵보살은 누구인가.

아주 옛날 인도 바라내국 바라문 출신의 귀족이었다. 그는 천자였다. 석가모니불의 초기교단에 귀의했으나 곧 세상을 떠났다. 스승의 슬픔이 컸다.

그런 그가 도솔천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그곳은 그가 석가보살과 함께 살았던 곳이기도 하였다.

그는 지상에서의 수행과 교화 대신 천인(天人)의 교화를 맡았다. 그러다가 석가 입멸 뒤의 56억7천여년이 지나서 다시 사바세계에 태어나 석가가 다 구제하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는 용화수 아래의 낙원을 이루게 되어 있었다.

그런 미륵보살로 하여금 그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상생(上生)신앙과 그 미륵보살이 내려와 용화세계를 이룰 때 거기에 동참하는 하생(下生)신앙이 나눠지기도 한다.

하지만 상생이든 하생이든 그것은 미륵과의 한없는 일치에서는 똑같은 것이다.

상수 상을은 도솔천 내원궁 미륵보살이 어디까지나 지상의 사바세계와 사바세계를 주재하는 석가모니불의 보처(補處)로서 존재하는 그 지극한 겸손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리인 평등 그것이라고 여기게 되어 그들 자신도 어느 때보다 하심(下心)의 나날을 보내는 행복 가운데 있었다.

다른 시자들이 그들 자매에게 넌지시 말하였다. "그대들로 하여금 이 높은 도솔천이 사바세계만큼이나 낮고 지옥만큼이나 낮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나 그들 자매는 도솔천 밖의 천상을 이따금 떠올렸다. 그것은 도솔천 아래를 내려다 봄으로써 마음을 낮추고 도솔천 위를 올려다 봄으로써 한층 더 그들의 몸을 낮추는 일이기도 하였다.

화락천 혹은 낙화천은 도솔천 위 32만유순, 수미산 정상 33천에서는 64만유순의 거리에 떠 있는 천상이다. 스스로 변하여 다른 것이 될 수 있는 곳이고 스스로 욕락의 오묘함을 누리는 곳이었다.

이곳 천인들은 스스로 빛을 뿜어냄으로써 항성(恒星)과 같다. 서로 마주보며 웃음만 머금어도 임신하는 것인데 아이는 자궁에서가 아니라 무릎 위에 문득 화생(化生)한다.

대상이 주체와 구별되지 않아서 너와 나라는 뜻을 통 모르는 곳인데 이곳에서 너와 나는 어쩌면 나와 너인지도 모르고 나와 나인지도 모르게 된다.

상수는 도솔천에서 꿈 속의 며칠을 살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런 꿈 속에서 그곳보다 더 높은 우주 속의 타화자재천에서 아득히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놀랍게도 인담의 목소리였다. 그렇다면 인담이 언제 33천에서 타화자재천의 천인이 되었다는 말인가. 인담과 함께 남은 우녀는 어디에 살고 있단 말인가.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인가.

타화자재천!

4왕천 33천의 수미산 아래와 기슭, 그리고 그 정상에 이어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그리고 타화자재천이다. 바로 이 여섯 천상계를 주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지상의 사바세계나 지하의 지옥과 아수라 세계에 이르기까지 두루 일관되는 힘을 가진 천상의 법칙을 갖추고 있다. 그것을 욕계의 마왕이라고 의인화하기도 한다.

남이 내가 되어 즐거움을 이루는 세상이다. 서로 눈길만 나누어도 그것이 성행위가 되는 세상이기도 하다.

인담과 우녀는 이곳에서 벌써 아기를 몇번이나 낳을 수 있었다.

간난아기가 열두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아들과 딸이 다섯이나 되어 함께 천상을 날아다니며 노는 것이었다.

그들 일곱 가족은 다른 천인들과 어울린 나머지 오래만에 타화자재천 가장자리 허공으로 갈 수 있었다. 누가 그곳으로 가자 한 것도 아니었다. 이곳의 1주야가 인간세상 1천6백년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의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가.

인담 우녀와 그 가족들은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즐거운 놀이에서 문득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막내 아이가 제의한 생각이기도 하였다.

우녀는 허공 그 자체가 되어 윤회의 끝마무리에…

"엄마 이곳이 천상의 가장 높은 곳이라 해도 욕망의 중생이 사는 곳인데다 이 욕계 말고 다른 세계로 가고 싶어."

이 응석받이 말에 우녀도 이제까지의 즐거움에서 깨어났고 그의 언니들도 그랬다.

아빠 인담도 마찬가지였다.

"색계말이구나… 색계에 가고 싶다는 말이구나"라고 인담이 천상의 날개짓을 멈추고 하늘 한복판을 우러러 보는 것이었다.

색계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이지만 그 물질 전체가 청정하고 오묘한 것이었다.

어디에 일정한 지형(地形)의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별들이 있고 많은 선정(禪定)을 닦은 정령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4선천(四禪天)이 있는데 그 네 천상은 초선천 2선천 3선천 4선천이다. 초선천에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 있다.

그런데 이 색계의 천상은 천상에서 사는 신들보다 그 신들의 내용이자 상징이기도 한 이욕(離欲)이나 정행(淨行)을 가리키게 마련이다. 바로 이같은 사실이 다른 지역의 신화와 다른 것이다. 신 자체보다 그 신의 지혜가 더 의미있기 때문이다.

인담이 저만치 날라갔다 왔다. 날라갔다 온다 해도 그 초선천의 존재는 매우 정신적인 집중으로 된 고요함 그 자체인 것이다.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부처의 마음과 닮아 있는가. 욕계에서 색계로 오고 색계에서 무색계로 온 뒤 그런 세계들이 부처의 세계를 펼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인담은 우녀에게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는 천상의 아내 우녀가 아내이기보다 어머니나 그윽한 스승으로 여겨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해서 인간세계의 그것과 다른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정령과 같기 때문에 허공 속의 그 진공상태를 움직이는 기운의 촉감인 것이다.

그들은 이제 욕계의 이성으로써 음욕이 없어진 상태이다. 그뿐 아니라 다른 즐거움도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제 4선천은 즐거움도 괴로움도 다 끊은 상태에서 무척이나 고요함 따름이었다.

"이제 흩어져 봅시다"라고 인담이 말하였다. 색계의 네 세상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선정(禪定)의 깊은 경지에서는 그 가족들은 하나같이 지혜로웠다.

우녀는 막내동이 천인과 정행으로 엉겨서 가장 높은 색계의 천상에서 무색계로 떠났다.

그는 남편인 인담과 남은 가족에게 아무런 말도 미련도 없었다. 그저 한 가닥 바람처럼 떠난 것이다. 욕계의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꿈꾸는 그 자유의 비상이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사바세계 무욕도니 33천이니 하는 지난 날의 전생도 다 벗어나서 우주 가운데서 어디 하나 걸리는 곳이 없었다.

고향이나 조국이나 그런 것도 조상이나 자손이나 그런 것도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끝 내 이 욕계 색계와 앞으로 들어갈 무색계의 구분 따위도 더이상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중생으로서의 생명체이다. 아직도 윤회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중생의 윤회가 가장 희박해진 허공법계에서 그토록 몇억만겁 동안을 중생의 얼굴을 되풀이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이어온 오랜 역사가 그 끝마무리에 가까워진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을 뿐이었다.

무색계는 허공 그 자체로서의 비물질 세계이다. 모든 것이 투명하다. 절대의 세계이고 우주와 내가 합일된 세계이다. 상대가 소멸된 세계이다. 어떤 물질로부터도 해방된 정신의 완전한 자유 그것이 무색계이다. 그래서 남녀의 구별도 없어진 세계, 1성(一性)의 세계이다.

여기서는 우녀와 막내동이의 형상이 없으므로 그들은 허공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이곳은 공간도 의식도 소유도 생각아닌 것도 생각 아님도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없어진 철저한 비물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치 이 세계에 그런 세계가 있을 까닭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곳이다.

누가 우녀이고 누가 막내동이인가.

아니, 색계에 살고 있는 나머지 가족인 인담이나 아이들도 여기에 뒤따라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말하자면 인간의 척도로는 아무것도 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무색계인 것이다.

이런 무색계 비상비비상처야말로 어떤 생각도 영구히 일으킬 수 없는 곳이다.

우녀도 모르게 인담이 왔으나 그들은 서로 누가 누구인지 모른다. 아니 그 자신에 대한 의식도 없으므로 오직 허공의 정신으로만 있는 것이다.

말도 소리도 없어졌다. 그래서 한없는 그 우주 속에서 그렇게 넓은 곳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 수미산 밑 지상에서는 말과 소리 때문에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가 얼마나 고되었던가. 그 공부 끝에 무색계의 가장 높은 비상비비상처에 이르렀다면 이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그 무색계의 형상과 물질이 끊어진 세계인데도 유정(有情)의 생명은 형상과 물질없이 실재하고 있는 것이었다.

한 무리 기운들이 모여 어디론가 떠났다. 그것은 그 누구의 뜻도 아니었다.

그 기운이 다른 기운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며 어느 때는 작아지다가 어느 때는 커지다가 하였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아주 옛날 일도 가비라성을 몰래 빠져나간 싯다르타가 히말라야 기슭에서 처음으로 만난 스승 아랄라가 가르쳐준 사선천(四禪天)의 끝인 비상비비상처가 어떤 중생에게도 그의 오랜 집착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도 뿌리깊은 애욕과 물욕 그리고 상(相)들이 이제야 허깨비이고 거품이고 티끌이고 아니 티끌도 아닌 사실을 알게 되자 그것을 아는 일도 다 사라져버렸다.

할 일이 없었다.

이제까지의 오랜 윤회도 여기서 나아갈 곳이 없었다. 이제까지의 정진도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 무색계의 가득함과 비어 있음으로써 다시 색계 욕계의 세계가 긴 밤이 지난 뒤의 새벽 여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기운의 성숙이 나타난 것이다.

어떤 말이 나왔다. 그래서 그 말이 들렸다.

"자 여기야말로 내 몸이고 집이고 나라인 것."

"자 네 나라인 것."

"자 네 몸인 것. 내 집인 것."

그 말을 알아들 수 있는 것은 한참 뒤였다. 처음에는 그 말도 그저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차츰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한쪽에서 이런 말 대신 아무런 뜻도 없는 소리가 나왔다. 그 소리는 모든 말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강요하는 것처럼 점점 커지기 시작하였다.

다시는 말이 없는 세계에서 살자는 어떤 결의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부처님이 마지막에 지난 몇10년동안 단 한 마디도 말한 적 없다고 한 사실과도 한통속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남긴 8만4천의 말들로 이루어진 경전이나 그 이후로 만들어진 역대 제자들의 논장(論藏)들조차도 다 날려버린 빈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연꽃 한 송이가 그런 말 옆에서 말의 이웃으로 태어났다. 그 꽃과 함께 말이 어여쁘게 놀기 시작하였다.

그림·조향숙

큰기술 PCS 016 세상-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작은 선택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는…
PCS 016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는 · 통신전문가 「한국통신프리텔」
가입신청은 ·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통화료의 5%는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이란?
PCS 016 가입시, 「포교기금 부다피아」로 신청만 하시면 최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받으시면서 불국토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고객에겐 조금의 부담도 없이 사용 통화료의 5%가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은 전문단체를 통하여 통일 포교와 불우이웃 돕기로 쓰입니다.

"포교기금 부다피아」가 꿈꾸는 세상, 모두가 하나되는 부처님나라."

품질 통화품질이 다르다
전파는 방해없이 바로바로 전달되어야 개꿋합니다. 국내최초로 PCS 업체중 시스템기술센터의 품질검증을 거치고, CDMA네트워크의 최적화를 이루한 PCS 016-33%가 한국통신의 교환기로 직접 연결되기에 통화품질이 타 이동전화회사보다 월씬 안정적입니다. 때문에 데이터 등의 훼손을 방지함은 물론 통화중 끊김현상, 혼선잡음 등이 거의 없습니다.

2배 채널용량이 다르다
한국통신프리텔은 현재에 급급하여 마구잡이로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습니다.온 국민 누구라도 넉넉하게 이동전화를 쓸 수 있도록 기지국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한 기지국 하나하나 마다 수용 채널수가 타 이동전화회사의 2배이기에, 통화량이 폭주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넉넉하게 PCS016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전국통화가 보인다
이땅의 곳곳을 누비며 축적된 통고신 자료, 전국의 도로지도, 인구통계, 건물자료 등 한국지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PCS 016 -전국 어디서나 개꿋한 감도로 통합니다.

97년 10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3%)

수도권	서울 전지역 인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송탄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의왕 의정부 파주 파주 평택 화성 부발 가평 강화 광주 가평 김포 연산 발안 수지 안성 양평 여주 연천 이천 장호원 전곡 직산 포천 청도 포천 대부도
강원권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정선 춘천 태백 진부 도계 원주 원동 정선 횡성 홍천 화천 횡성
충청권	대전 계룡 공주 공주 당진 부안 부여 보령 서천 공주 아산 보령 아산 예산 천안 강경 강천 금산 당진 대전 서산 서천 성고 시천 성거 연무 일지 예산원 홍천 유구 장항 스지원 장항 논산 충청 홍성
전남권	광주 강진 강화 나주 목포 무안 진주 장흥 제주 고흥 곡성 광주 분동 부안 삼계 순천 함평 영광 나주 목포 순천 여수 여천 진도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남동 남원 노화 담양 도암 돌산 무안 번성 광주 영광 함평 진도 장성 장흥 전도 해남 홍농 화순 화이도 노화도 보길도 나로도
경남권	부산 대구 경산 경주 구미 김천 김해 남해 안동 밀주 밀천 포항 통영 해운 김포 간전 고령 구월도 강치공항 광동 진산 삼주 안강 양동 양덕 양동 예천 의전 유곡 유동 울진 의성 의도 장동 장흥 기장 기장 울산 울진 울주 울주 기장 기장 울산 전주 전동 정천 월평 기장 고령 남지 남해 봉소 청산 산양 산양 통일 의동 장인 진동 장보 해남 홍전 홍읍 기장
제주도	서귀포 제주 구좌 남원 대정 성산 안동 이동 조천 한림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남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광주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97년 11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6%)

수도권	의정
강원권	원동 가천 통리 원덕
충청권	삼동 주덕 상현
전남권	신이면 문동 월고 삼동 도천도 서도 월도 전주도 교동도 강화도
경남권	동산 대서 방동 동동도

97년 11월 통화가능지역(전국 인구대비 97%)

수도권	원동도 보월도 덕적도
강원권	정동 주문진
충청권	그리 대전 보전
전남권	동동 장수 전인 관산 내인 동동 서도 월동 흑산도 홍도 상조도
경남권	가운 한동 이도 홍동동 대동 상동 원산 상동진

소리가 보인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

■ 「포교기금 부다피아」 PCS 016 전국 가입처 ■
서울본사 02-732-1522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양지국 0344-912-2323